

목포 천재 극작가 김우진의 삶 재조명

1020년대 표현주의 실험 작가...최초 근대극 선구자 목원동 김우진 거리·갯바위문화타운 등 문학혼 기려

이중석과 신혜선이 주연으로 출연한 SBS 특별단막극 '사의 찬미'가 호평 속에 중영한 가운데 주인공인 목포 출신의 천재 극작가 김우진과 그가 활동했던 목포가 주목받고 있다.

김우진은 1020년대 표현주의를 직접 작품으로 실험한 유일한 극작가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신극운동을 일으킨 근대극의 선구자다.

또 시, 소설, 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뽐낸 문학의 르네상스인이었다.

김우진과 목포의 인연은 1908년부터 시작된다.

1897년 장성군에서 출생한 김우진은 1908년 가족과 함께 목포로 이사하여 유달산 자락의 북교동 성취원(현 북교동성당)에서 살았다. 김우진은 목포 공립보통학교(현 목포북교초등학교), 목포공립소상고등학교를 거친 뒤 1915년 일본으로 건너가 구마모토 농업학교,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24년 목포로 귀향했다.

김우진은 부친이 설립한 상성합명회사 사장에 취임했으나 문학인으로서의 꿈을 이어가며 창작 활동도 왕성히 펼쳤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한 자유로운 삶과 문학적 포부로 인해 부친



목포시가 천재 극작가 김우진을 삶과 문학활동을 엿볼 수 있게 조성한 목원동 김우진 거리. /목포시 제공

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을 뒤로 하고 1926년 6월 일본 도쿄로 건너갔다.

이후 그해 8월 사랑하는 사이인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서 현해탄으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목포시는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김우진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원도심

인 목원동과 갯바위문화타운에 각각 마련했다.

목원동은 김우진이 살았던 북교동성당 일원 골목길에서 김우진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김우진 거리를 조성했다. 유년시절을 보낸 생가터, 작품 중 목포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되는 '이영녀'를 벽면에 표현한 주택가 등 볼거리를 마련했다.

갯바위문화타운에서는 목포문학관이 김우진의 문학 세계를 밀도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목포문학관은 김우진을 비롯해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목포 출신 문학인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관으로 문학인별로 전시실이 구분돼 있고, 볼거리가 풍부하다.

/목포=박승경기자

내고장 일꾼



명현관 해남군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조순가정동철기김장담그기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12일 오전 10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12일 오전 8시 30분 군청 군수실에서 열리는 국·과·소장 정책회의에 참석한다.

영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관내 41개 원장 등 300여명 참석

영암군어린이집 연합회는 최근 군민회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영암군 관내 41개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어린이집에서는 오는 2019년 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차량운영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에는 현재 4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3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군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

일본 선진지 견학 등 우수사례 군정 적극 반영

완도군의회는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수 내용과 결과를 집행부와 각급 기관·사회단체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군 현안 해결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군 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고회의 주 내용으로는 연수 대상국 선정·계획 수립 과정, 현지 기관 방문 및 정보 수집 현황, 의원 개인별 연수 후기 등을 설명했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핵심 산업인 농수산업과 관련된 일본의 해조류관련 사업 분야를 비교 관찰

견학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복구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재난·안전시스템을 견학하는 등 연수 동기와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정남선 완도농협조합장은 "이번 국외 연수 결과보고회를 통해 6·13지방선거 이후 완도군 의회 의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일본의 선진 사례 중 한 가지라도 군정에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인호 의장은 "추진 계획부터 대상 국가 및 기관 방문, 연수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와 함께 연수가 끝날 때까지 신중을 기했다"며 "제한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고천암호를 방문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 "AI 방역 선제적 대처"

철새도래지 고천암호 인근 현장점검 실시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철새도래지인 고천암호를 방문해 방역관리 사항과 농가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명 군수는 고천암호 일대의 현수막과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안내판, 생석회 살포, 발판소독조 설치 등 철새 탐방객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 관리사항과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소독과 주변 농가 차단방역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방역방제기 등 방제차량을 동원한 철새도래지 소독 현장을 참관했다.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명군수는 "야생조류 유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고병원성 AI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고천암호와 금호호에 철새 도래지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가 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해 입출사전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주 2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금사육 농장에서는 야생조류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망을 설치하고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이동진 진도군수, 미술 메세나상 수상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 추진 등 미술 발전 공로 인정

이동진 진도군수가 제12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행사에서 미술 메세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미술문화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 발전에 공헌한 기관 등에게 대한민국 미술인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진 군수는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특구 선정에 이어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대한 공로 높이 인정받아 영예의 '대한민국 미술메세나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과 국립예술대학 유치 등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 진도군을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대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285-9816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무안 010-3621-8989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강진 드림스타트 미술교실 운영

강진군 드림스타트센터는 최근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 미술교실을 운영했다.

군 드림스타트는 인지 자극의 기회가 부족한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유아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집에서 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아이와 함께 해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강진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강진군 우수활동 자원봉사자 60여명은 최근 순천시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역량강화 현장학습에 나섰다.

이번 현장학습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병환 강진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현장학습을 통해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모범음식점 21곳 선정

진도군은 최근 위생상태·맛·서비스 삼박자를 두루 갖춘 모범 음식점 21곳을 선정했다.

군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서비스, 맛 등을 평가해 모범음점소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와 함께 위생상태 등 총 22항목을 현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5개 소중 2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여성자치대학 수료식 개최

영암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여성자치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94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영암군 여성자치대학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문화·관광,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로 약 10개월 동안 강의와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운영했다.

영암군 여성자치대학은 2년제과정으로 운영되며 올해 12년째를 맞이하면서 1년차 629명, 2년차과정 48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영암=최복섭 기자